

06

보건

평균수명

비만율과 체중조절 시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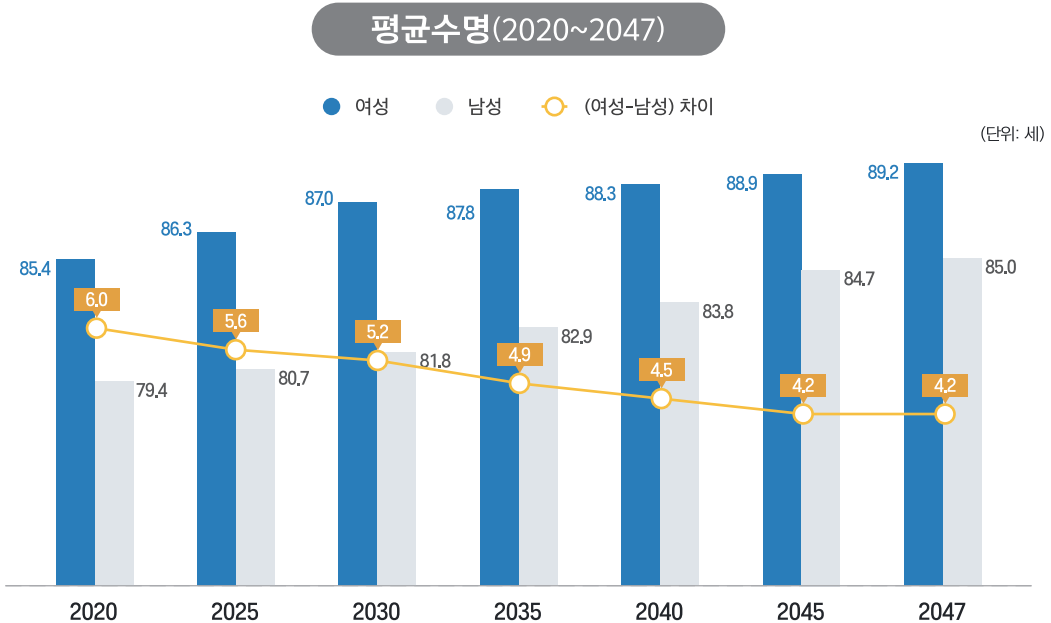
스트레스

건강관리

6. 보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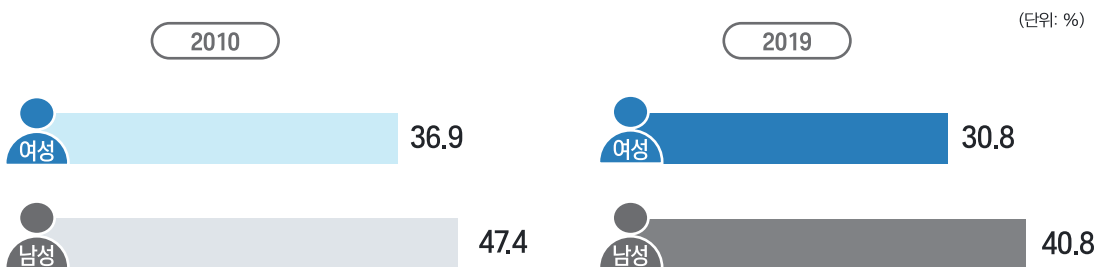
평균수명

여성, 남성의 평균수명은 모두 증가하고, 평균수명 차이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



자료: 통계청, 「장래인구추계」, KOSIS, (표 6-1)

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(2010, 2019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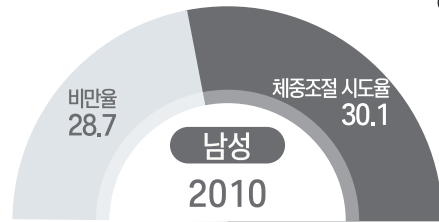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4)

- 2020년 평균수명은 여성 85.4세 남성 79.4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6세 길지만, 2047년 여성 89.2세 남성 85.0세로 평균수명 성별격차는 4.2세로 좁아짐
- 여성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2019년 30.8%로 2010년 대비 6.1%p 낮았고, 남성은 2019년 40.8%로 2010년 대비 6.6%p 낮음
- 주관적으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정도의 성별격차는 10%p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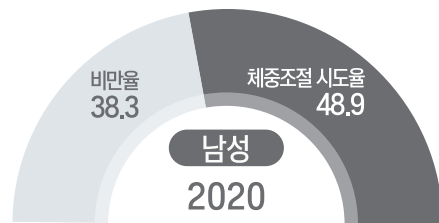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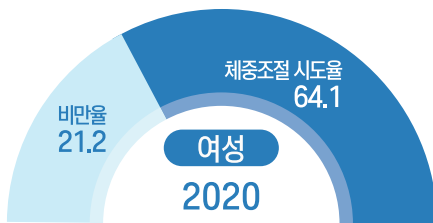
비만율과 체중조절 시도율

비만율 증가에 따라 체중조절 시도율, 걷기 실천율, 규칙적 운동 모두 상승함

비만율 및 체중조절 시도율(2010, 20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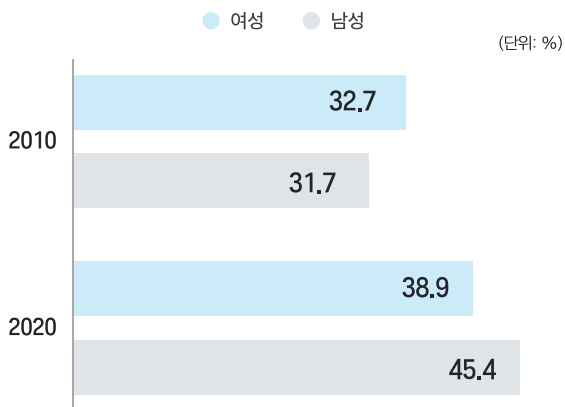
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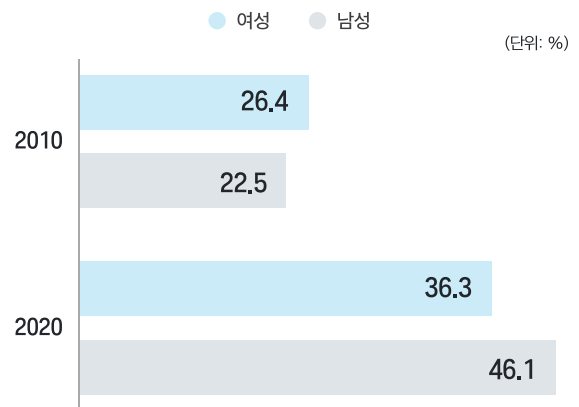
자료: 질병관리청, 「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, (표 6-3)

걷기 실천율(2010, 2020)
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2020 지역사회건강조사 한눈에보기」, (표 6-18)

규칙적 운동 실천율(2010, 2020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8)

- 2020년 여성의 비만율은 21.2%로 2010년 16.6%대비 4.6%p 증가하였고, 체중조절 시도율은 2010년 40.3%에서 2020년 64.1%로 23.8%p 증가함
- 2020년 여성의 걷기 실천율은 38.9%로 2010년 32.7% 대비 6.2%p 상승함
- 2020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의 비율은 36.3%이고 2010년 26.4% 대비 9.9%p 증가함

6. 보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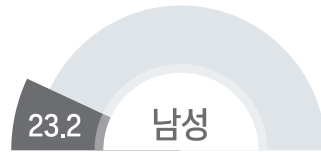
스트레스

여성은 남성보다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률이 높으나, 자살률은 남성이 두 배 이상 높음

스트레스 인지율(2020)

● ● 느낌 ● ● 느끼지 않음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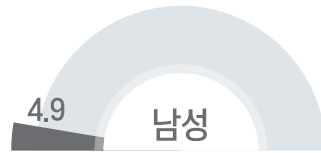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6)

우울감 경험률(2020)

● ● 느낌 ● ● 느끼지 않음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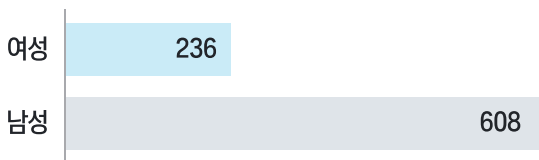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7)

자살 현황(2020)

<자살인구>

(단위: 명)



<자살률>

(단위: 10만 명당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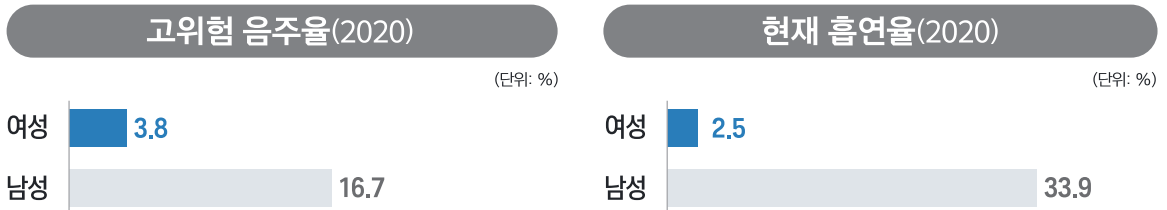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「사망원인통계」, KOSIS, (표 6-27)

- 2020년의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은 23.8%로 남성의 23.2% 보다 0.6%p, 여성 우울감 경험률은 7.6%로 남성의 4.9% 보다 2.7%p 더 높다고 응답함. 그러나 자살률은 남성이 36.3%로 여성 14.3%보다 22.0%p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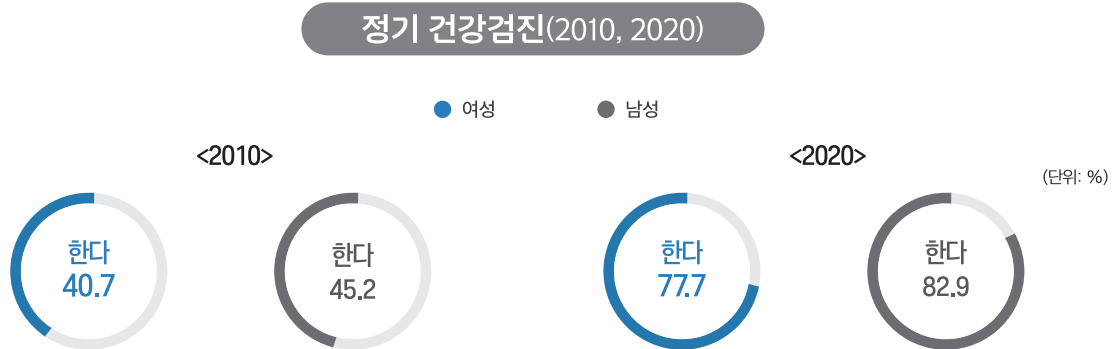
건강관리

고위험 음주율, 흡연율 및 정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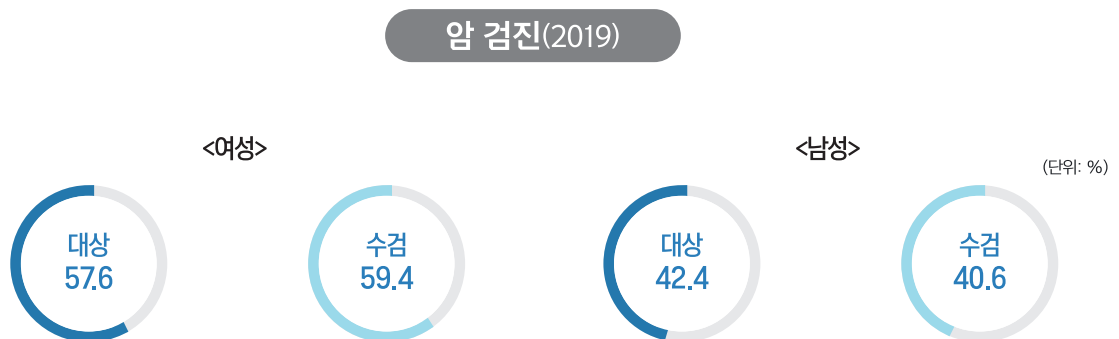
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지역사회건강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14)

자료: 질병관리청, 「2020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」, (표 6-12)



자료: 통계청, 「사회조사-원자료분석」, 성인지통계시스템, (표 6-8)

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「건강검진통계」, KOSIS, (표 6-11)

- 2020년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3.8%로 남성의 16.7%보다 12.9%p 낮고, 2020년 여성의 현재 흡연율은 2.5%로 남성의 33.9%보다 31.4%p 낮음
-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도 2010년 여성이 남성보다 4.5%p 높으나, 2020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5.2%p 높음